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친구는 집에 없고 집안 일을 책임지는 하인이 대신해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인은 조금만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올 거라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자 하인은 따뜻한 홍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하인이 건넨 쟁반에는 기다리는 동안 간단히 읽을 만한 책 한 권까지 곁들여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에 감동한 그는 가벼운 고갯짓과 눈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 후 하인은 하던 일을 끝마치려는지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멍해진 셰익스피어는 차라도 한 잔 더 얻어 마실 생각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엌문을 연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는 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은 누가 일부러 들춰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인은 누가 뒤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억지로 시킨 것 같지도 않은데 혼자 콧노래를 불러가며 양탄자 밑을 닦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부터 셰익스피어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어나는 질문과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구절이 여러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은 "큰,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함"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큰 아버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이죠) 심한 기근이 생겼는데,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브람은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애굽에 갔다가 애굽사람들이 내 어여쁜 아내 사래를 뺏으려고 날 죽이고자 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실 아브람이 좀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람에게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고민이죠! 오늘날이야 범질서 확립, 민생치안, 문명과 교육이 옛날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요... 물론 오늘도 여전히 부정 부패가 많지만요. 하지만, 그 옛날 물리적인 힘의 논리가 절대적이었던 시대에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당시 아브람에게 너무도 심각한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이 아침에, 여러분도 어쩌면 아브람과 같은 심각한 고민이 있으실 수 있어요. 살고 죽는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분명 계시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처지가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 옛날 아브람도 겪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먹고 살아보겠다고 애굽까지 내려온거예요. 앞에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동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가라하셨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움직인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기근이 심할 때! 내 눈 앞에 닥친 삶의 문제가 심각할 때! 그리하기 쉬워요. 성도들조차도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순간 순간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세상의 논리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긴하지만, 일단 살고 봐야지! 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아브람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그분의 길을 의지하기 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빼앗길 뻔한 위험천만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들도 살아보겠다고 내 생각 대로 했다가 일을 그르치는 순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성경도 읽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도 하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함에 있어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말을 하고, 성경적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해서 오늘날 신앙 따로 삶 따로가 기독교의 큰 문제 아닙니까?

종교개혁가 마틴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에게 물려왔어요. 의도와 달리, 마틴 루터는 그야말로 눈코 뜰 사이도 없이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거예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선택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지요? 바쁘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이 부족하시죠?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다면 더 시간을 구별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다운 믿음의 선택들을 하십시오.

다시 아브람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런 심각한 고민과 어리석은 그의 선택도 있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축복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여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오나 오나 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기회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브람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이키게 되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3장을 나중에 읽어 보세요! 바로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에게 너무도 친숙한 말씀이 나와요. 조카 롯에게 아브람이 ‘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가막히게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던 아브람이었잖아요. 근데 롯의 하인들과의 자신의 하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여기서! 아브람이 달려졌어요.

이러한 과정이 뭘 이야기해 줄까요? 아브람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이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와 같이 그도 분명 잘못도 범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창세기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습다.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가막히게 대처했던 아브람이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지혜로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내 방법 고집했다가 일을 그르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기름지고 편리한 소돔과 고모라든지, 척박한 땅 광야이든지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이야!’ 아브람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의 본받을 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그는 우쭐대거나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그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아브람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이 떠올랐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부르게 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양이 떠올랐어요. 물론, 그 찬양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 마리아의 관점에서 작시된 내용이지만, 오늘 아브람의 삶과도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아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인간으로서 어느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보면 유독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 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물론 신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불러 주셨지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